

마갈릿의 ‘품위 있는 사회’ 기획과 정의의 문제

—악셀 호네프의 『인정 투쟁』에서의 ‘타자의 인정’ 개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허민
(서울대 철학과)

들어가며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서구 정치 철학은 마르크스주의와 롤즈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으며, 그리하여 서구 정치 철학의 중심 문제는 재화를 분배하는 것에 있어 규범적인 근거가 되는 ‘정의’(Justice)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 이래 정의를 중심으로 한 정치철학적 논쟁의 지형도는 다른 개념, 곧 ‘모욕’과 ‘인간 존중’, 혹은 ‘인정’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변화하기에 이른다.¹⁾ 요컨대, 종래의 관심사가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지향하는 것이었다면, 인간에 대해 가해지는 모욕을 근절하고 각자가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타자에게 각자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된 것이다.

정의에서 인정으로의 정치철학적 관심사 변화에 대해 우리는 여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우선, 우리는 모욕의 근절과 인간 존중이라는 문제의 중요성에 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각자를 각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혹은 각자를 인간으로서 존중하

1) Axel Honneth, “A Society Without Humiliation?”, *E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Vol. 5 No. 3, 1997, p.306.

장은주, 「사회정의와 인간의 존엄성: 마갈릿의 “품위 있는 사회”의 기획에 대한 비판적 검토」, 『철학사상』, 제19권, 2004, pp.198-202.

지 않고 모욕하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또한 우리는 이러한 관심사 변화에 관해 종전의 문제와 새로운 문제 사이의 연관관계에 관한 의문도 가질 수 있겠다. 예컨대, 인간 존중과 모욕의 근절이라는 문제는 재화의 공정한 분배와 연관되는 정의의 문제와 과연 무관할 수 있는가?

이상과 같은 우리의 의문과 관련하여 『품위 있는 사회』에서의 아비샤이 마갈릿의 논의는 흥미롭다. 마갈릿은 『품위 있는 사회』에서 타자의 인정이 인간의 자아·정체성에 관해 수행하는 역할을 논함으로써 인간을 모욕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에 대한 대답을 준다. 나아가 마갈릿은 인간 존중과 정의로운 재화 분배 사이의 연관 관계에 관한 우리의 물음에 대해 가장 극단적인 대답을 제시한다. 그는 인간 존중의 문제가 재화의 공정한 분배 문제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품위 있는 사회』에서의 마갈릿의 주장을 검토해봄으로써, 앞서 우리가 제기했던 의문에 대해 나름의 해명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겠다.

특히, 우리는 마갈릿의 주장에 대한 검토를 인간 존중과 모욕의 근절 문제를 논하는 대표주자로 꼽히는 호네프의 『인정투쟁』과의 비교를 통해, 특히 ‘타자의 인정’이라는 개념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를 비교함으로써 수행할 것이다. 호네프는 마갈릿의 주장에 대해 “A Society Without Humiliation?”에서 반론을 펼치면서도, 마갈릿과 여러 측면에서 같은 입장을 공유한다. 그렇기에 이런 호네프와의 비교는 앞서 우리가 제시했던 물음들에 대한 마갈릿의 주장이 가지는 한계나 의의에 관한 고찰을 보다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호네프와의 비교를 통해 인간 존중의 문제에 관한 마갈릿의 주장을 평가하고자 하는 본문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1. 우리는 『품위 있는 사회』에서의 마갈릿의 핵심 주장을 살펴보고, 그 주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을 밝힐 것이다. 2. 우리는 마갈릿이 1절의 논의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살펴보고, 마갈릿과 호네프의 공통점을 ‘타자의 인정’ 개념과 자존감과 자부심 개념에 관한 양자의 입장에서 탐색해 볼 것이다. 3. 우리는 호네프가 마갈릿이

게 제기하는 비판을 재구성해봄으로써 ‘타자의 인정’ 개념에 대한 양자의 이해가 상이함을 지적하고, 이로부터 마갈릿의 핵심 주장이 갖는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갈릿의 접근 방식이 한계를 지니는 것이긴 하지만, 마갈릿이 인간 존중의 문제에 대해 제기하는 주장들에 일정 부분 의의가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마갈릿의 핵심 주장과 그 정당화 조건

모욕의 근절과 인간을 인간으로 인정·존중하는 문제와 관련된 여러 논의들 가운데 마갈릿의 입장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은 『품위 있는 사회』에서의 그의 핵심 주장이다. 곧, 그는 제도가 인간을 모욕하지 않는 사회, 그로써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를 ‘품위 있는 사회’(Decent Society)로 정의하면서 그러한 사회에 대한 이념이 ‘정의로운 사회’의 이념과 분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 다시 말해, 인간을 모욕하지 않고 존중함은 재화의 공정한 분배 문제와 완전히 무관한 것이며, 어떤 사회는 품위 있는 사회이면서도 정의롭지 않을 수 있다.(DS:17,55)

인간 존중의 문제에 관한 이런 강한 주장을 정당화하는 마갈릿의 전략은 『품위 있는 사회』의 중심 개념인 ‘모욕’(Humiliation)과 연관된다. 마갈릿에 따르면 모욕이란 “자존감이 손상되었다고 생각할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 행동이나 조건”(DS:23)이다. 모욕에 관한 정의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것이 ‘타당한 이유’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규범적인 정의라는 점이다. 곧, 마갈릿은 누군가가 설령 모욕감을 느꼈다고 할지라도 그가 모욕을 당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타당하지 않는 한, 모욕이라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

2) Avishai Margalit, 『품위 있는 사회』, 신성림 역, 동녘, 2008, p.15.

이후 논의들에서의 본서의 인용은 각주들에서건 본문에서건 (DS:page) 형태의 내주로 처리한다.

있다고 본다. 이로부터 자연히 저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문제시 되겠는데, 마갈릿 자신은 자세하게 논하고 있지 않다. 그는 모욕감의 타당한 근거는, 누구나 그 상황에서 그 이유로 모욕감을 느낄 만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근거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DS:44,196)

한편, 모욕에 관한 정의의 두 번째 핵심은 모욕이 ‘자존감’ 혹은 ‘자기존중’(self-respect)의 손상과 결부된다는 것이다. 인간을 모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감을 침해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감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기존중·자존감’은 “인간으로서 자신에게 부여하는 존중”(DS:138)으로, 자신이 인간으로서 존중 받을 만하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DS:64) 그런데 마갈릿에 따르면 자존감은 인간이 자신에 대해 취하는 또 하나의 태도인 ‘자부심’(self-esteem)과는 엄격하게 구분된다. 모욕이란 자존감의 손상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부심의 손상 여부와는 무관하다.

자존감과 자부심에 관한 마갈릿의 구분은 각각에 대한 정의·규정에 있어서의 근거들이 다르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는 개념적인 구분의 형태를 취한다. 자부심은 사람들마다 상이한 특성·능력에 근거한 자기 평가로 규정되고, 자부심과 결부되는 명예는 사람들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사람을 능력과 성취에 따라서 등급매기는 ‘사회적 명예’(social honor)이다. 그에 반해 자존감의 근거는 사람들마다 상이한 특성·능력과는 무관한, 자신이 인간이라는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자존감과 결부되는 명예 역시 사람을 능력이나 특성에 따라 등급 매기지 않는 것이며, 사람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될 수 없는 것이다.(DS:55-56,60-61) 즉, 마갈릿은 각각이 결부되는 명예의 유형이 상이함을 근거로 자존감과 자부심을 구분한다.

자부심과 자존감 구분에 있어 근거가 되는 명예의 두 유형, 즉 등급을 나눌 수 없는 명예와 등급을 나눌 수 있는 명예를 구분하는 것은 마갈릿이 품위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와는 구분된다고 주장할 때 내세우는 핵심적인 근거이기도 하다. 곧, 품위 있는 사회가 오로지 등급을 나눌 수 없는 명예의 보장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정의로

은 사회는 저 명예 이외에도 등급을 나눌 수 있는 명예의 공정한 분배에도 관심을 가진다. 달리 말하자면, 품위 있는 사회가 자존감의 훼손, 모욕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데 비해 정의로운 사회는 정당한 자부심의 손상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까지도 관심을 가진다.³⁾

물론, 정의로운 사회와 품위 있는 사회가 관심을 두는 명예의 유형이 다르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부정의하면서도 품위 있는 사회가 가능하다는 마갈릿의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다. 등급을 나눌 수 있는 명예와 등급을 나눌 수 없는 명예는 필경 개념적으로 구분되며,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 분석적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그러나 양자가 개념적으로 구분된다는 것 그 자체는 서로가 비개념적인 방식으로라도 연관될 가능성에 관해선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⁴⁾ 예컨대, 자존감과 자부심이 상이한 개념임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는 자부심의 손상이 인과적으로 자존감의 손상도 낳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선 어떠한 대답도 주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공정하지 않은 명예·재화의 분배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존감의 손상을 낳을 수 있다면, 자존감의 보호는 공정한 명예·재화의 분배 문제와 무관할 수 없다. 그리고 마갈릿에 따르면 공정하지 않은 명예·재화의 분배는 자부심의 축소를 낳는다.(DS:242-244) 이때 자부심의 축소가 자존감의 손상을 낳는 경우들이 존재한다면, 자부심의 부당한 축소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공정한 명예·재화의 분배 문제는 인간의 자존감 보호에 있어 중요해진다. 결국, 부정의하면

3) 물론, 정의로운 사회에 관한 논의의 관심사, 공정한 재화 분배 문제가 모든 자부심에 대한 보장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갈릿이 모욕감을 타당한 이유를 갖는 것과 타당한 이유를 갖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듯이, 자부심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구분을 취해볼 수 있다. 곧, 그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에 관한 객관적인 인식에 근거한 자부심과 그렇지 않은 자부심을 구분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이나 성취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로운 사회에 관한 논의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인식에 근거한 자부심을 보장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4) 이러한 비개념적인 연관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과 관계가 있다.

서도 품위 있는 사회가 가능하다는 마갈릿의 주장이 참이라면, 등급을 나눌 수 있는 명예와 결부된 자부심의 손상이 등급을 나눌 수 없는 명예와 결부된 자존감의 손상을 낳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마갈릿이 자부심의 손상이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들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음을 본다.(DS:204) 그렇기에 자존감과 자부심에 관한 마갈릿의 구분에는 양자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지적을 넘어선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부정의하면서도 품위 있는 사회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혹은 자부심과 자존감 사이의 구분과 관련하여 마갈릿 스스로가 하나의 문제를 제기한다. 사회적 명예와 결부된 자부심의 획득·보존이 사회, 넓게는 타자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DS:139) 자부심은 자신의 능력·업적이 가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호네프가 지적하듯 자신의 능력·업적이 가치 있는 이유에 관한 판단 근거는 사회·타자라는 맥락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어렵다.⁵⁾ 혹은 내가 나의 능력·업적에 합당한 사회적 명예가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 이면엔 보상이 요구되는 능력·업적의 가치에 관한 나와 사회·타자의 상호인정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타자가 나의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자가 나에게 능력만큼의 보상을 해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마갈릿은 자존감을 자신이 인간의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을 근거로 스스로에게 명예를 부여하는 태도로 이해할 경우, 자존감 획득이 타자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지가 겉보기에 분명치 않다고 말한다.(DS:38) 자존감 획득의 근거는 자신이 인간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인데,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는 나를 대하는 타자의 태도와는 독립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DS:140) 그렇다면 나를 대하는 타자의 태도가 어찌되었건, 타자와 나 사이의 관계 양상이 어찌되었건 나 자신이 인간이라는 스스로의 판단만으로도 자존감의 획득은 가능

5) Axel Honneth, 『인정투쟁』, 문성훈·이현재 역, 사월의책, 2011, pp.235-236.

이후 논의들에서의 본서의 인용은 각주들에서건 본문에서건 (KA:page) 형태의 내주로 처리한다.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 마갈릿은 자존감·자기존중의 획득이 타자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존감의 획득 주체가 자신을 생각하는 방식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자존감의 획득에서 주체의 생각 방식만이 문제시될 경우, 『품위 있는 사회』의 기획 전체가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 자존감의 획득이 자신의 판단에만 전적으로 달려있다면, 사회·타자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 생각이 굳건할 경우 나의 자존감은 훼손될 이유가 없으며, 나에 대한 모욕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DS:139-140) 이는 제도가 우리를 모욕한다고 생각할 타당한 이유가 없게 만들며, 사회적 제도가 아니라 각자의 판단이 모욕의 근절에서 중요하게 된다.(DS:37-38) 그래서 마갈릿은 스스로의 기획이 유의미함을 보이고자 위해, 우리가 스스로를 인간이라는 이유로 존중하는 것에서조차 타자의 인정이 필수적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곧, 마갈릿은 자존감과 자부심에 관한 자신의 구분이 인간 존중과 모욕의 근절에 관한 사회·정치철학적 기획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한 과제를 스스로에게 부과하고 있다.

2. 마갈릿의 정당화 전략과 호네트와 마갈릿 사이의 공통점

그렇다면 마갈릿은 자존감과 자부심의 구분을 관철하는 것에 있어 중요한, 자존감의 획득이 타자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나아가 마갈릿은 타자의 인정이 개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가? 이 절에서 우리는 이에 관한 질문들을 답함과 동시에, 타자의 인정에 대해 마갈릿이 부여하는 역할이 호네트가 타자의 인정에 대해 부여하는 역할과 공통점을 가짐을 지적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저 공통점의 이면에 자부심과 자존감에 관한 양자 사이의 보다 심층적인 유사성이 자리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자존감의 획득이 타자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마갈릿의 전략은 다음의 삼단논증을 통해서 간략하게 제시될 수 있다.(DS:140-142를 바탕으로 재구성)

- a) 자존감은 인간 공동체의 가치라는 개념, 포괄적으로는 인간 공동체라는 개념에 의존한다.
- b) 인간 공동체라는 개념 형성은 타자에 대한 인식, 타자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 c) 따라서 자존감의 획득은 타자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논증의 전제인 a)와 b)를 받아들일 근거는 무엇인가? 마갈릿은 a)의 정당화가 자존감의 획득이 무엇을 전제하는지를 논리적으로 따져봄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고 본다. 자존감은 자신이 인간으로서 존중 받을 만하다는 태도를 함축한다. 곧, 자존감은 자신이 인간 공동체라는 가치 있는 공동체에 속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저 인식은 (가치 있는 공동체인) ‘인간 공동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와 의미 파악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DS:141) ‘인간 공동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인간 공동체에 자신이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자존감의 획득은 그것의 담지자가 특정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음을, 포괄적으로는 언어활동의 수행자일 수 있음을 전제한다.

한편, b)에 관한 마갈릿의 정당화 전략은 유비 추리에 의존한다. 마갈릿은 “세상에 빨간 것이 단 하나만 존재한다면 빨강의 개념은 형성될 수 없다”고 말한다.(DS:142) 우리는 이로부터 유추를 통해 ‘세상에 인간이 단 한 명만 존재한다면 인간의 개념은 형성될 수 없다’를 추리해낼 수 있다. 곧, 누군가가 자존감을 획득할 수 있다면, 그가 인간 공동체의 개념을 인식할 수 있다면 이는 단수의 인간이 아니라 복수의 인간이 존재하며 자존감의 담지자가 타자들을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마갈릿은 이런 유추를 근거로 자존감의 획득이 타인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타자가 나를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같은 태도들에 무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곧, 이 지점에서 자존감 획득

득에 있어 타자의 인정이 필수적임이 일단은 정당화된 셈이다.

그렇다면 타자의 인정은 개인 혹은 그의 자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우리가 보기에 흥미로운 것은 마갈릿이 b)를 정당화하면서 타자와 내가 동일한 언어를 공유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없이는, 곧 그 공유를 가능하게 한 타자와 나 사이의 상호주관적인 동의·인정 관계없이 언어활동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철학적 주장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같은 곳) 그런데 저 주장은 하버마스·미드 등에 의해 제시된 것들이기도 했으며, 실제로 호네프는 자존감 획득에서 타자의 인정을 강조하는 마갈릿의 논리가 하버마스, 미드 등에 의해 제시된 논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⁶⁾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버마스, 호네프 등의 영향을 받은 호네프와 마갈릿 사이에 타자의 인정이 자아, 개인에 대해 갖는 역할에 관한 공통적인 주장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실제로 우리는 호네프와 마갈릿 모두 타자의 인정이 인격과 자아 정체성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점에선 의견을 같이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마갈릿에게서 타자의 인정이 자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드러나는 부분은 ‘포괄집단’(Encompassing Groups)에 관한 논의에서이다. 포괄집단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집단이 아니라 국가나 인종처럼 대개 태어나면서부터 그에 대한 소속이 결정되어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DC:155-156) 포괄집단으로의 소속은 집단 내에서 공유되는 공통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데,(DC:154) 공통의 문화들은 자신의 인간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인간이 인격과 자아를 표현하는 양식들을 제공하고 형성한다.(DC:151,158) 다시 말해, 포괄집단은 인격 형성과 자아 정체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DC:151,154) 사회가 이런 포괄집단에서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들을 거부하는 것은 그 집단에 소속된 이의 자존감을 손상시킬 수 있다.(DS:156)

그런데 마갈릿은 인격과 자아 형성의 중요한 계기인 포괄집단으로

6) 위의 책, A. Honneth, 1997, p.311.

의 소속이 타자의 인정에 의존한다고 말한다.(DC:154-155) 예컨대,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소속되는 것은 단지 내가 그 영토 안에서 비자발적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진정으로 소속되는 것은 국가가 나를 국민으로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한국인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마갈릿에게 있어 타자의 인정은 인격과 자아 정체성 형성에 있어 중요한 포괄집단으로의 소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인 셈이다. 곧, 마갈릿은 타자의 인정이 인격과 자아 정체성 형성의 주요 조건이라고 간주한다. 누군가의 자존감을 보장한다는 것은 타자의 인정과 매개된 포괄집단을 승인하는 것을 포함하며, 그의 인격과 자아 정체성 형성에 있어 타자의 인정과 결부되는 계기들을 보장함을 포함한다.

한편, 호네트 역시 타자의 인정을 인격과 자아 정체성 형성의 주요 조건으로 간주한다. 호네트는 ‘정서적 배려’, ‘인지적 존중’, ‘사회적 가치 부여’라는 인정의 세 형식을 구분하고 각각이 개인의 인격과 자아 정체성 형성에서 서로 구분되는 중요 계기들로 작용한다고 본다.(KA:249)⁷⁾ 예컨대, 건전하고 성숙한 인격이 스스로의 몸과 욕구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그 욕구를 표현할 때, 스스로의 몸과 욕구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임을 직관적이다. 하지만 학대당한 아이들은 자신의 몸에서 오는 기본적인 반응조차 거북해하고 표현하기를 두려워하며 인격과 자아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문제들을 겪는다.⁸⁾ 이는 역으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신이 인정받는다는 경험이 몸과 욕구에 대한 신뢰, 인격과 자기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KA:230) 한편, 자신의 권리가 인정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험 역시 주체가 “자기 자신을 (...) 담론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인격체로 간주”(KA:233)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호네트와 마갈릿의 공통점이 단지 양자가

7) 강병호, 「악셀 호네트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구조와 논리」, 『현대 정치철학의 모험』, 도서출판난장, 2010, p.294.

8) 앞의 책, p.295-296.

타자의 인정을 인격과 자아 정체성 형성의 주요 조건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실 호네트와 마갈릿 모두가 타자의 인정을 인격과 자아 정체성 형성의 주요 조건으로 간주할지라도, 호네트가 마갈릿의 논의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점하는 자부심과 자존감의 구분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면, 저 공통점에 대한 지적은 무의미한 것에 그칠 것이다. 하지만 양자는 모두 근본적인 지점, 곧 마갈릿의 논의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점하는 자부심과 자존감의 구분에 관해서도 상당할 정도로 입장을 공유한다. 호네트는 자신이 『인정투쟁』에서 “인간을 인정하는 것과 인간에 대한 가치 평가를 구별”(KA:221)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호네트가 사용하는 ‘인간을 인정하는 것’과 ‘인간에 대한 가치 평가’ 개념은 마갈릿의 자존감과 자부심 개념, 혹은 ‘인간 존중’과 능력·성취에 근거한 ‘인간 평가’ 개념에 각각 대응한다.

호네트의 ‘인간을 인정하는 것’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한 인간을 그의 능력이나 특성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인격체로 인정할 수 있”(KA:219,221)게 하는 근거인데, ‘인간에 대한 가치 평가’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각 개인의 능력과 업적”(KA:221,236)이다. 곧, 호네트 역시 마갈릿처럼 인간을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 곧 인간을 존중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전략이 개인의 능력·업적과는 무관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호네트는 마갈릿과 비슷하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인간에 대한 가치 평가’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자부심을 낳고, 그 대응 개념인 ‘인간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낳는다고 본다.(KA:247,249) 즉, 우리는 자존감과 자부심의 개념적 구분 방식, 각각이 연관되는 특성의 유형들, 자존감과 자부심의 근거가 되는 것들에 관해 호네트와 마갈릿이 상당할 정도로 입장을 공유함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음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다. 호네트와 마갈릿 모두 자존감과 자부심이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정당화 근거가 다름에 동의한다. 나아가 호네트와 마갈릿 모두 ‘자존감’의 획득이 타자의 인정과 무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개인의 인격과 정체성 형성에 있어 타자의 인정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고 파악하

고 있다. 그렇다면 호네트는 과연 마갈릿의 또 다른 주장, 즉 모욕의 근절과 자존감의 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품위 있는 사회가 공정한 명예·재화의 분배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것인가? 혹은, 자부심의 손상이 어떤 경우에도 자존감의 침해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것인가?

3. 호네트의 인정 개념을 통해 본 마갈릿의 주장의 한계

2절의 논의는 모욕의 근절과 인간 존중에 관한 마갈릿과 호네트의 입장이 어느 정도 연속선상에 놓이진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게 만든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마갈릿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비판하는 호네트의 일련의 언명들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호네트의 비판의 요지는 무엇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또 이 비판의 근거는 자존감과 자부심에 관한, 혹은 타자의 인정이 개인·자아에 대해 수행하는 역할에 관한 두 사람의 이해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까? 나아가 이런 비판이 『품위 있는 사회』에서의 마갈릿의 핵심 주장에 관해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이하의 논의에서 우리는 호네트의 비판을 재구성하고 그 근거를 분석해봄으로써 정의롭지 않으면서도 품위 있는 사회가 가능하다는 마갈릿의 주장의 한계를 보여주고자 한다.

1절에서 지적하였듯이 마갈릿은 자부심의 손상이 자존감의 손상을 불러오는 상황들을 인정하지 않으며,(DS:204) 자존감의 보장과 모욕의 근절 문제를 공정한 재화의 차등적인 분배 문제로부터 엄격하게 분리시킨다.(DS:17,55) 품위 있는 사회에 관한 논의는 등급을 나눌 수 없는 명예에만 관심을 가지며, 그렇기에 어떤 사회는 품위 있는 사회이면서도 정의롭지 않은 사회일 수 있다.(DS:17,55-56) 그에 반해 정의로운 사회는 인간 존중의 문제 이외에도 공정한 명예 분배 문제에도 관심을 가진다.⁹⁾(DS:284-285) 마갈릿은 이처럼 품위 있는

9) 그래서 마갈릿은 정의로운 사회는 동시에 품위 있는 사회이어야 한다고 말한다.(DS:17)

사회에 관한 논의가 정의로운 사회에 관한 논의에 비해 좁은 문제들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은 품위 있는 사회에 관한 논의가 가질 수 있는 의의라고 본다. 곧, 품위 있는 사회의 이상은 보다 넓은 문제를 다루기에 실현되기 어려운 정의로운 사회에 비해 추구될 만 하다는 것이다.(DS:295)

그런데 호네프는 “A Society Without Humiliation?”에서 『품위 있는 사회』를 논평하며 마갈릿의 자부심과 자존감의 엄격한 구분을, 혹은 등급을 나눌 수 없는 명예의 침해와 등급을 나눌 수 있는 명예의 침해가 완전히 무관하다는 마갈릿의 주장을 비판한다.¹⁰⁾ 특히 호네프는 마갈릿이 가난과 모욕의 관계를 고민하는 지점을 주목한다. 우리가 호네프의 편에 서서 그의 논지를 재구성해보자면 아마 다음과 같을 것이다.¹¹⁾ 사람은 능력에 따라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고, 그에 따라 성공이나 실패를 겪는다. 그런데 이런 성공과 실패의 유무는 사람에 따라 등급을 나눌 수 있는 특성에 근거하는 바, 성공과 실패의 경험에 의해 고양되기도 하고 침해되기도 하는 감정은 자부심일 것이다. 곧, 마갈릿의 주장대로라면 아무리 처참한 실패를 겪더라도 손상되는 감정은 자부심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자존감의 원천은 내가 인간 공동체·포괄 집단에 소속되는 것 그 자체에 있지 특별한 능력·성취의 유무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갈릿은 자부심의 손상을 불러오는 처참하고 “전면적인 실패는 단순히 특정 과제에서 실패했다기보다 인간으로서 실패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쉽다”(DS:244)고 말한다. 곧, 마갈릿이 보기에 자부심의 손상이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상황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마갈릿의 언명은 자부심을 축소시키는 상황들이 자존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그의 또 다른 언명(DS:156,204)들과 일관적일 수 없다. 마갈릿 역시 이런 상황에선 자부심과 자존감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는 자신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극히 어려움을 인정한다.(DS:242) 결국, 『품위 있는 사회』에서의 마갈릿의 논의는 일관성

10) 위의 책, A. Honneth, 1997, p.307.

11) 이에 관한 호네프의 지적은 앞의 책, p.320.

을 갖추고 있다 보기 어려우며, 이는 품위 있는 사회와 정의로운 사회에 관한 그의 날카로운 구분 역시 의심스러운 것으로 만든다.¹²⁾

물론, 마갈릿에 대한 호네트의 비판은, 자부심과 자존감이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주장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을 의미할 수는 없다. 우리가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호네트 역시 『인정투쟁』에서 마갈릿과 마찬가지로 자부심과 자존감이 개념적으로 구분됨을 인정하고, 인간이 자신에 대해 취하는 각각의 태도의 정당화 근거가 상이함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곧, 호네트에게서도 자부심의 근거는 각 개인의 업적과 능력(KA:221,236)이었고 자존감의 근거는 개인의 특성이나 능력과는 무관했다.(KA:219,221) 그렇다면 호네트의 마갈릿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마갈릿이 자부심의 손상이 자존감의 훼손을 불러올 수 있음을 거부했다는 것, 혹은 자부심과 자존감 사이에 성립할 수 있는 연관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겠다.

이상의 분석은 달리 말하자면, 호네트가 마갈릿과는 달리 자존감과 자부심 사이의 연관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주고 있음을 함축한다. 그렇다면 호네트가 자존감과 자부심에 연관을 주는 방식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두 개념이 구분됨에도 체계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면 무슨 근거로 그러한가? 실제로 호네트는 ‘인간을 인정하는 것’(자존감)과 ‘인간에 대한 가치 평가’(자부심)의 차이점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자존감과 자부심 두 개념이 모두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자아실현에 중요하다는 점 또한 강조한다.¹³⁾ 2절에서 다루었던 ‘타자의 인정’의 역할, 개인의 자아와 정체성 형성에 관한 테마가 이 지점에서 다시 논의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호네트에 따르면 사회·타자가 누군가의 권리를 인정해줌으로써 그를 인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그가 스스로를 “담론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인격체로 간주”(KA:233)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사회·타자가 공정한 가치 평가를 통해 누군가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것도 건강한 자아를 위해 필수적이다. “한 개인이

12) 앞의 책, p.321.

13) 위의 책, 강병호, pp.291-294.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가 자기만의 독특한 능력이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KA:241)뿐이기 때문이다. 곧, 호네트가 보기엔 인간을 존중하는 것과 인간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은 타자를 인정하는 상이한 방식이지만, 양자 모두 개인의 인격·정체성에 매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을 인격체로 간주하는 것, 즉 자존감을 가짐과 자신을 어떤 분야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고 평가하는 것, 즉 자부심을 가짐 모두는 건전한 인격과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계기들이다.

호네트는 이상과 같은 자부심·자존감과 개인의 인격·정체성 형성의 관계를 기관과 몸의 관계로도 비유한다.(KA:256-257) 예컨대 허파와 심장이라는 두 기관은 상이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몸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자존감과 자부심 역시 개념상 구분되지만, 건전한 자아와 정체성 형성에 있어 둘 모두 필수적이다. 그런데 호네트는 자부심, 자존감의 훼손을 특정 기관에 병이 드는 것으로도 비유한다.(KA:257-258) 이는 자부심의 훼손이 자신과 개념상 구분되는 자존감의 손상을 불러올 수 있음을, 곧 자부심과 자존감이 체계적으로 연관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관의 질병은 신체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다른 기관도 덩달아 안 좋아지고 병이 드는 것은 직관적인 것 같다. 그렇다면 자부심의 손상,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인식 역시 그 사람의 인격을 파탄 나게 할 경우 자존감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겠다.

호네트는 자존감과 자부심을 구분하면서도 자존감의 손상과 자부심의 손상 사이의 연관 관계를 타자의 인정이 자아 정체성에 대해 수행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그에 비해 마갈릿에게선 이런 연관 관계 설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호네트와 마갈릿 모두 자부심의 획득이 타자의 인정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마갈릿에게서도 사회적 명예와 결부된 자부심의 획득·보존이 사회, 포괄적으로는 타자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이다.(DS:139) 하지만 마갈릿은 사회적 명예 획득과 관련된 타자의 인정이 자부심의 담지자의 인격·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묻지 않는다. 곧, 마갈릿에게서

타자의 인정이 개인의 인격·정체성과 관련하여 문제시되는 것은, 자존감과 결부된 포괄집단의 경우일 뿐이다. 그래서 마갈릿은 “품위 있는 사회는 불평등(…)도, 참을 수 있다”며 자부심의 손상을 사소한 문제로 바라본다.¹⁴⁾

그렇다면 우리는 호네트의 인정 개념과 마갈릿의 인정 개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겠다. 호네트는 자부심, 자존감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인정 유형을 다양하게 구분한다. 각각의 인정 유형에 대해 제기되는 규범적인 물음들은 유형에 따라 다르며, 각각의 인정 유형이 개인의 인격·정체성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하다. 하지만 호네트는 각각의 인정 유형들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면서도, 그것들이 개인의 인격·정체성이라는 ‘몸’을 중심으로 상호 연관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본다. 그에 반해 마갈릿은 자존감의 영역에서만 타자의 인정이 개인의 인격·정체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며, 자부심의 획득에도 타자의 인정이 필요함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인격·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선 무관심했다. 그렇기에 자존감·자부심의 두 영역에서의 상이한 타자의 인정 방식은 서로 연관될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은 마갈릿의 인정 개념 이해의 협소함이 결국 자존감과 자부심의 경계가 모호해 보이는 상황들에서 마갈릿이 당초의 주장을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관찰할 수 없었던 근본 이유로 보인다. 호네트는 마갈릿처럼 자존감과 자부심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면서도, 각각이 개인의 인격·정체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그렇기에 인격·정체성의 건강함을 매개로 상호 연관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이런 관점대로라면 자부심의 손상이 자존감의 손상을 낳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양자가 개념적으로 구분된다는 주장을 일관성과 설득력을 갖추고 제시할 수 있다. 그에 반해 타자의 인정이 자아·개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마갈릿의 협소한 시각은 마갈릿이 스스로가 빠져나오기 어려운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인식하게 만들었다.

자존감과 자부심에 관한 마갈릿의 이해 방식의 한계는 결국, 정의

14) 위의 책, 장은주, p.213.으로부터 재인용하였다.

롭지 않으면서도 품위 있는 사회가 가능하다는 마갈릿의 핵심적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개인이 건전하고 정당한 자부심을 획득하는 것은, 곧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개인의 능력과 성취에 관한 사회적인 인정과 그 인정에 입각한 명예·재화의 공정한 분배와 무관할 수 없다. 정의롭지 않은 사회는 개인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그만큼 인격에 대해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개인은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공정하지 않게 대우하는 사회가 자신을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곧 사회가 자신을 모욕한다는 생각에 이를 수 있다. 존중받지 못하는 이들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흑인들이 사회로부터 모욕당한다고 느끼는 까닭은 많은 경우 자신들의 능력·노력이 백인들에 비해 받아야 할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느낌에 기인하지 않는가? 결국, 우리가 보기엔 인간 존중이라는 이념이 공정한 재화의 분배라는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4. ‘품위 있는 사회’에 관한 마갈릿의 기획의 의의

3절에서 우리는 『품위 있는 사회』에서의 마갈릿의 논의가 일관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품위 있는 사회에 관한 논의가 정의로운 사회에 관한 논의를 포함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피력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품위 있는 사회』에서의 마갈릿의 논의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모욕의 근절이라는 측면에 있어 유의미할 수 있는 지점들은 무엇일까? 이 절에서 우리는 『품위 있는 사회』에서의 마갈릿의 논의들이 갖는 의의를, 정의로운 사회에 관한 논의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마갈릿의 우려를 통해, 마갈릿이 인간의 자존감 획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는 포괄적 판단에 관한 논의를 통해 수행할 것이다.

2절과 3절의 논의들은 인간의 자존감 획득이 사회, 포괄적으로는

타자의 인정이라는 계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마갈릿과 호네프 모두 자존감 획득이 요구하는 타자의 인정 방식이 개인의 건전한 인격, 자아, 정체성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곧, 누군가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모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자아, 정체성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것이며 모욕당한 이가 겪는 고통은 극심한 물리적 학대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다. “자신이 말을 더듬는 것을 남들이 흉내낼 때 고통 받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DS:101-102) 호네프 역시 자존감의 훼손이 그 사람의 도덕적 판단능력과 자주적 판단능력에 대한 손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KA:230)

『품위 있는 사회』에서의 모욕의 근절과 인간 존중에 관한 마갈릿의 논의는, 이상과 같은 자존감 훼손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고통의 심각함에 관한 인식과 맞물려 있다. 마갈릿은 『품위 있는 사회』의 2부에서 인간이 존중받아야 하는 까닭을, 인간 존중의 근거를 묻는다. 이에 대한 대답은 다양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는 칸트가 그러했듯이 인간은 자기입법능력이 있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DS:75) 호네프의 경우, 인간 존중의 근거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판단의 자율성이다.(KA:222) 하지만 마갈릿은 인간 존중의 근거와 필요성이 모욕이 낳는 고통의 심각성만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존중의 부재가 낳는 심각한 고통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이 존중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DS:98)

나아가 마갈릿이 인간 존중의 정당화와 필요성에 대한 주장의 근거로 존중의 부재가 낳는 심각한 고통으로 드는 것은, 물론 그 고통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론 모욕에 관해 가능한 한 폭넓은 접근을 취하고자 하는 의식적 노력에서도 기인한 것이다. 예컨대, 마갈릿은 인간의 도덕적 판단 능력, 자기입법능력을 인간 존중의 근거로 택하지 않는다. 그가 보기엔 인간 존중의 근거로 인간의 도덕적 판단 능력을 두는 것은 도덕적 판단 능력을 결여한 사람들이나 악용한 사람들에 관한 존중의 문제를 남긴다.(DS:75-76)

물론, 마갈릿 스스로가 보기에 인간 존중의 도덕적 판단의 자율성을

인간 존중의 근거로 드는 것이 저 사례들을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무리 도덕적 판단 능력이 박약한 사람이라도 그를 인간이게끔 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판단 능력은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그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DS:76-77)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갈릿이 인간 존중의 근거로 도덕적 판단 능력을 놓지 않는 것은, 저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가정의 부담조차도 인간 존중의 문제이라는 문제에 관한 접근을 제약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 가령 모든 사람에게 그를 인간이게끔 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판단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 도덕적 판단 능력이라는 기준은, 그가 도덕적 판단 능력을 결여한 사람을 존중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

인간 존중과 모욕의 근절 문제를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마갈릿의 시도는 달리 말해, 다른 관점들이 놓치기 쉬운 인간 존중과 모욕의 근절 문제에 보다 민감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정의로운 사회에 관한 논의에 대해 그가 취하는 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정의로운 사회에 관한 논의는 명예를 차등적이면서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이런 정의로운 사회를 논하는 이들 또한 인간 존중, 모욕의 근절을 중요하게 여길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마갈릿은 “정의로운 사회의 이념이 구성원과 비구성원 모두에게 품위 있는 사회여야 한다고 (...) 확신한다.”(DS:286) 그렇기에 마갈릿이 보기에도 원칙적으로는 “정의로운 사회는 모두 품위 있는 사회”(DS:17)여야 한다.

하지만 마갈릿은 다른 한편으로, 명예의 공정한 분배에 초점을 맞출 정의로운 사회에 관한 논의들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DS:286,292) 예컨대, 마갈릿은 정의로운 사회에 관한 논의들이 인간 존중과 모욕의 근절이라는 문제를 이념적으로는 포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재화 분배라는 관심사에 대한 매몰이 인간 존중과 모욕의 근절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둔감하게 만드는 경우를 우려한다. 어떤 제도는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그 제도의 절차가 인도적인 방

식으로 이루어짐을 논리적으로 함축하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합당한 몫의 분배에 관심을 집중하는 정의로운 사회에 관한 논의들은 저 인 도적 분배의 문제에 무심할 수도 있다.(DS:292) 그래서 합당한 몫을 부여받은 과정에서 모욕적인 방식을 개인이 자존감의 손상을 겪을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마갈릿은 정의로운 사회에 관한 논의들이 취하는 형식들이 그것들이 추구하는 인간 존중과 모욕의 근절이라는 문제에 대한 접근에 한계를 부여한다고 생각한다. “형식이 그 이념을 얼마나 가깝게 쫓아갔는지는 잘 모르겠다.”(DS:286) 그리고 마갈릿이 정의로운 사회에 관한 논의들이 취하는 형식으로 지목하는 것은 계약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계약 당사자들에게 추상적인 각종 권리를 보증해주는 방식이며, 이 접근 방식을 취하는 대표적인 이는 롤즈이다.(DS:285, 288, 289) 그런데 마갈릿이 보기엔 이런 계약론적인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곧,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로부터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근거가 그 사회의 성립이 구성원들의 계약을 통해 가능했다는 점에 있다면, 그 사회에서 살아가지만 계약당사자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 예컨대 불법 이주민들을 존중하는 것은 관심사에서 멀어지기 쉽다. 정의로운 사회에 관한 논의를 존중하는 사회에서조차 이런 이방인들에 대한 모욕은 흔하다.(DS:285)

무엇보다 마갈릿이 강조하는 것은 자존감 보장과 자아 정체성 획득에 있어 중요한 포괄집단의 문제이다. 예컨대, 계약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롤즈는 『정의론』에서 인간의 자존감을 보장해주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 기획에 있어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정의로운 사회의 이념이 개인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집단에 귀속되는 것을, 혹은 개인이 그 속에서 나름의 목적을 실현할 집단의 활동을 보장한다고 말한다. “정의로운 제도는 그 속에서 개인들이 자신의 보다 특정한 목적을 실현할 단체들의 다양한 내면 활동을 허용하고 권장해준다.”¹⁵⁾ 그리고 롤즈가 정의의 원칙이 보장하는 집단의 의의로 들고 있는 것은, 그 집단에의 소속이 각자가 상호 협력 속에서 탁월

15) John Rawls, 황경식 역, 『정의론』, 이학사, 2003, p.247 그리고 p.676.

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¹⁶⁾ “많은 단체들과 (….) 공공 생활은 우리의 노력을 뒷받침해주고 우리의 기여를 유도해낸다.”¹⁷⁾

하지만 마갈릿은 개인이 속하게 되는 공동체들에 대한 롤즈와 같은 이해 방식이 협소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인용구에서 드러나듯, 롤즈가 정의로운 사회의 이념과 관련하여 주로 고려하는 공동체들은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고 탁월성을 발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소속하게 되는 공동체들이다. 그러나 마갈릿이 보기엔 “종교나 국가 처럼 개인의 삶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포괄집단에 소속되는 일을 마치 다른 성인들과 상호 동의 아래 자유로운 계약 관계를 맺는 일처럼 묘사하는 것은 엄청나게 비현실적이다.”(DS:289) 개인의 자존감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인정 공동체들은 대개 그 개인이 선택의 여지 없이 태어날 때부터 속해있는 공동체, 예컨대 민족, 종교, 국가 등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런 집단에서의 소속에서 우리가 자존감을 획득하게 되는 계기들은 많은 경우 능력의 발휘나 그에 합당한 보상의 문제와는 무관하다. 예컨대 특정한 의복을 착용하거나 특정한 요리를 먹는 것, 특정한 의식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그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의 행복과 자존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DS:154)

포괄집단에서 수행되는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활동들이 자존감 획득에 있어 중요한 계기를 담당한다는 주장은 『품위 있는 사회』에서의 그의 논의들이 일정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마갈릿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모욕하고 거부하는 것은 그가 자기를 인간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거부한다는 의미이다.”(DS:158-159) 누군가가 자신을 인간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에 따라, 맥락에 따라 그 구체적인 모습이 극히 다를 수 있다. 어떤 민족이라는 집단에 속하는 이에겐 자신을 인간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수염을 기르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집단에 속하는 이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에 대해 사회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16) 위의 책, pp.672-673.

17) 위의 책, p.677.

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그 사회가 이 집단에 속하는 이들의 능력과 성취에 대해 어떻게 보상해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만으로는 대답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기에 인간을 존중하고 모욕의 근절을 추구하는 품위 있는 사회에 관한 고민에는 공정한 재화·명예의 분배에 관한 고민만으로는 쉽게 환원될 수 없는 지점들이 존재한다. 혹은 『품위 있는 사회』에서 마갈릿이 근절해야 할 악이라고 간주하는 모욕이라는 사태는, 법적인 권리 보장이라는 추상적인 방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지점들을 분명 포함한다. 이처럼 공정한 재화·명예의 분배 문제로 환원되기 어려운 지점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3절에서 제시한 주장, 인간에 대한 존중이 공정한 재화의 분배 문제와 완전히 무관할 수 없다는 주장과도 일관적이다. 인간에 대한 존중이 많은 경우 공정한 재화의 분배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갈릿이 제시하는 사례들에서처럼 공정한 재화의 분배 문제와 상당히 떨어져서 제기되는 인간 존중의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에 관한 논의들은 그 이념에 있어서는 능력과 성취에 따라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만큼이나 인간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에 관한 논의들은 그 이념적 지향과는 달리 자존감 형성의 중요한 계기들, 종교집단의 문제들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DS:288) 『품위 있는 사회』에서의 마갈릿의 논의들은 이처럼 정의로운 사회에 관한 논의들이 사소한 것으로 간과하는 경우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또 누군가의 자존심에 얼마나 심각한 손상을 주는지에 대해 주목할 것을 촉구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런 절박한 악의 근절에 대한 그의 호소의 강렬함은 그 호소를 뒷받침하기 위한 그의 주장들의 일관적이지 않은 측면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처럼 사소한 것으로 지나치기 쉬운 문제들의 중대함에 대한 강조는, 『품위 있는 사회』에서의 마갈릿의 논의가 인간 존중의 문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의의로 평가될 수 있겠다.

나가며

마갈릿은 인간 존중과 모욕의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품위 있는 사회의 이념이 공정한 재화의 분배 문제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기엔 어떤 사회는 정의롭지 않으면서도 품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마갈릿은 이러한 주장이 성립할 수 있기 위한 조건, 자부심의 손상이 자존감의 침해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관철하지 못했다. 특히 우리는 2절과 3절의 논의를 통해 호네프가 자존감과 자부심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엔 마갈릿에게 동의하면서도, 타자의 인정 개념을 중심으로 자부심과 자존감 사이에 체계적인 연관 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관점에 따라 품위 있는 사회에 관한 논의가 정의로운 사회에 관한 고민과 무관할 수는 없음이 직관적임을 주장했다.

물론, 우리는 4절의 논의를 통해 『품위 있는 사회』에서의 마갈릿의 논의들은 이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할 수 있음을 논했다. 마갈릿은 포괄집단이라는 공동체와 그 공동체 내부에서 수행되는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상호 인정 방식들이 개인의 자존감 획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마갈릿의 주장은 정의로운 사회에 관한 논의들이 그동안 둔감했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모욕적인 사태들에 주목할 것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 그리고 이런 마갈릿의 논의가 갖는 의의는, 앞서 우리가 지적했던 마갈릿의 주장의 한계를 함께 놓고 볼 경우, 인간에 대한 존중과 공정한 재화의 분배 문제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함을 함축한다. 곧, 인간에 대한 존중과 공정한 재화의 분배 문제 사이에는 한편으론 양자가 서로 가깝게 접근하는 지점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들이 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논의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 '정의'의 문제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관되는지에 관한 보다 총체적인 고찰의 필요성이란 숙제를 남겨주는 것이 된다. 물론, 이러한 논의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 우리의 논의 전개에 극히 유용했던 타자의 인정 개념이 도

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러한 논의가 필요한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 고통, 즉 악으로서의 모욕의 근절을 추구하는 논의는 결코 사소한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Honneth. Axel, 『인정투쟁』, 문성훈 · 이현재 역, 사월의책, 2011.
- _____, “A Society Without Humiliation?”, *E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Vol.5 No3, 1997.
- Margalit. Avishai, 『품위 있는 사회』, 신성림 역, 동녘, 2008.
- Rawls. John, 『정의론』, 황경식 역, 이학사, 2003.
- 강병호, 「악셀 호네트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구조와 논리」,
『현대 정치철학의 모험』, 도서출판난장, 2010.
- 장은주, 사회정의와 인간의 존엄성: 마갈릿의 “품위 있는 사회”의 기
획에 대한 비판적 검토」,
『철학사상』, 제19권, 2004.